



F1 세계 속으로 질주... 전남의 운명 가른다

F1(포뮬러원) 그랑프리는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다. 한국에서도 오는 2010년 10월에는 영암에서 F1마신이 굉음과 함께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 기술과, 열정적인 마니아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투입되는 F1자동차대회는 전남의 랜드마크(Land mark)로서, 전남의 운명을 바꿔줄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주차

최고 속도 355km... 대당 100억 원대

F1그랑프리에 참가하는 차는 머신(Machine)이라고 불린다. 승용차와는 달리 오직 경주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희귀품이기 때문이다. 커다란 장난감 같은 F1머신은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2~3초가 걸리며, 실제 서킷(자동차 경주장)에서 최고 355km/h의 스피드를 자랑한다. 항공기와 이륙하는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멈추는 것도 빠르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의 배기량은 국산 중형차와 같은 수준인 2.4ℓ에 불과하다. F1머신은 이 엔진에서 780마력의 힘을 뽑아낸다.

차체 제작 비용은 정해진 값은 없지만, 각 팀들이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연구비와 첨단 고급자재를 일일이 손으로 꺾어 만드는 부품값 등을 감안하면 대당 무려 100억 원 안팎에 이른다.

드라이버

3억 명당 1명 전 세계에 단 20명뿐

전세계에서 F1드라이버는 올해 단 20명뿐이다. 카레이서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지만, 인구 3억 명 당 단 한 명만이 F1드라이버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 F1드라이버 자격을 획득하려면 F1A(국제자동차연맹)의 수퍼 라이선스를 받아야한다.

초고속으로 달려야 하는 드라이버들은 코너에서 최대 5G(중력가속도)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일반인은 3.5G

의 압력을 받으면 의식을 잃는다. F1드라이버들은 또 지구 중력의 5배에 이르는 힘을 견디면서 동시에 정밀한 운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경주를 끝내면 드라이버의 몸무게는 보통 3kg이 감소한다.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만큼 대가도 엄청나다. 유명한 미하엘 슈마허는 한 해 800억 원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재벌이다.

경기운영방식

3~11월 10개팀 17개국서 경주

F1그랑프리는 매년 3~11월 사이 10여 개의 팀이 전 세계를 순회하며 경주를 치르게 된다. 올해는 10개 팀이 17개 국가에서 경주를 갖는다. 각 팀에는 2명씩의 드라이버가 소속돼있다. 올해는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경주가 끝났으며, 지난 19일엔 3번째로 중국 상하이에서 결승이 치러졌다. 모든 그랑프리는 개최 국가의 현지시

간을 기준으로 금요일에는 예행연습, 토요일엔 예선 그리고 일요일엔 결승이 치러지는 등 3일간의 공식일정으로 운영된다.

결승예선 20대의 머신이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300여km를 달린다. 올해의 경우 오는 11월1일 열리는 아부다비 전을 마지막으로 2009년 F1그랑프리 일정이 마감된다.

경제적 가치

184개국 TV시청자 연간 6억 명

F1팀들은 연간 수천 억 원의 경비를 투입한다. 경주에 참여하는 10개 팀의 연간 예산은 무려 2조7천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은 대부분 스폰서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자동차나 타이어, 엔진오일 제조업체, 금융과 통신, 전자, 음료 업체 등은 F1마신이나 드라이버의 옷에 상표를 붙이

는 대가로 많게는 3천500억 원에서 적게는 수억 원씩을 쏟아붓는다. F1경주는 또 폭발적인 관중동원력을 자랑한다. 1개 국가당 3일간의 그랑프리 일정에서 평균 입장객은 20만 명 수준이다. 또 전세계 TV시청자 수는 184개국에서 연간 6억 명에 이른다.

전남개최효과

매년 20만명 방문 2,500억 생산유발

전남에선 오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 일대에서 제1회 F1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된다. 내년 초 완공예정인 전남의 F1서킷은 총 길이 5.684km의 F1전용트랙과 3.047km의 삼설트랙을 갖춘 신개념 퓨전 서킷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행하게 된다. F1트랙의 길이는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특히 1.25km에 이르는 직선 트랙은 최고 속도가 시속 350km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F1마신의 성능을 극한까지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F1에는 대회가 치러지는 3일간 매년 15~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남에서만 2천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천500억 원대의 생산유발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보해양조
www.bohae.com
www.bohae.com

임술주세요!

임시주 한 속드물 백자답

유기농 배리를 사용으로
깨끗하게!
195로 개별계!

메이플 소주
일세주